



보성소리의 적통인 정권진으로부터 이어진 춘향가를
정응민-정권진-윤진철-정윤형으로 전승되어
정권진의 고급스러움과 윤진철의 섬세함을 받은
정윤형의 춘향가 완창.

지금의 소리 길이 가지고 있는 운용방식과 다른 길을 보여주며
기존에 소리가 지니고 있었던 특징들을 보여준다.

판소리 정윤형

- 윤진철, 조주선, 정희석사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
- 제23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 대회 명창부 대통령상
- 현)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정단원
- 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겸임교수

김명환의 생사맥은
판소리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런 김명환의 가락을 옅게 잇고 있는 김동원의 완복.

지금의 장단 운용방식과는 다른 투박함과
고급스러움이 공존하는 일산고법을
완복으로 보여준다.

고수 김동원

- 김명환, 윤진철 판소리 고법 사사
- (사) 사물놀이 한울림 연구교육부장 역임
- 요요마의 실크로드 앙상블 단원
-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 프랑스 파리8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 현)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 교수



正心 正音

정심정음 : 보성소리 춘향가 완창 정윤형 | 일산 고법 완복 김동원
2026. 5. 17(일) 오후 2시 서울돈화문국악당

주최·주관 정윤형, 김동원 티켓 전석 2만원 예매 서울문화재단문의 02-3210-7001 후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 본 공연은 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순서

1. 만남 -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
2. 언약 - 천장지구에 해고석란이요
3. 사랑 - 이리오너라 업고 놀자
4. 이별 - 여보 도련님 날 다려 가오
<휴식>
5. 시련 - 충신은 불사이군, 열녀는 불경이부
6. 급제 - 장원급제 하였구나! 이몽룡 신래이!
7. 출도 -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8. 재회 - 아이고 내 지환아 이제야 나를 찾아왔느냐
9. 뒤풀이 - 더질 더질



정심정음 ‘正心正音’ 바른마음에서 바른소리가 나온다.

보성소리의 정신을 지켜나가고 있는 정윤희와
일산 김명환의 고법을 지켜나가고 있는 김동원의 춘향가 완창-완복 공연이다.

‘보성소리’는 정응민 명창이
여러 명창들에게 배운 소리의 장점들만 모아 새롭게 판을 짰 것이다.
그 중 정응민 명창의 아들 정권진 명창의 소리는
보성소리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소리로 꼽힌다.

이 공연이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는 정응민의 아들 정권진,
그리고 윤진철로 전승되어 수제자 정윤희가 정권진의 고급스러움과
윤진철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보성소리 춘향가를 완창한다는 점에 보태어
보성소리에 가장 특화된 김명환 명고의 고법을 잇는 김동원이
근래에 보기 힘든 완복 공연을 한다는 점이다.

정권진으로부터 이어진 소리는 소릿 길만 가지고
장단과 음정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경이로운 즉흥성과
단전에서 호흡을 끌어올려 보다 더 깊이있는 소리를 들려준다.

정윤희는 스승 윤진철을 통해 정권진의 소릿 길을 계승하며
젊은 명창 중에서도 보성소리의 이면을 잘 담아내는 소리꾼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수 김동원은 김명환 명고의 마지막 제자로서
호흡과 생사맥을 중요시하는 스승의 고법을 깊이 있게 잇고 있다.

이들은 정권진과 윤진철, 그리고 김명환의 ‘소리와 북의 합’을 이어받아,
세대와 시대를 잇는 예술적 호흡을 보여줄 것이다.